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打…打…打…打 대폭발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시범경기에서 KIA 신종길이 9회초 2사1·3루에서 역전 2타점 2루타를 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신종길 4안타…공격형 2번타자 '딱'

시범경기 9안타 5할 … 빠른발에 홈런도

KIA, 삼성에 10-11 아쉬운 재역전패

칭찬이 신종길을 춤추게 했다.

KIA 타이거즈의 외야수 신종길이 2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5타수 4안타 2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KIA는 5-8로 뒤진 9회초 신종길의 2타점 2루타를 포함 대거 5점을 뽑는데 성공했지만, 10회 연장 승부에서 나온 박석민의 끝내기 안타에 10-11 패를 기록했다.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신종길이 우완·좌완을 상대로 또 밀고 당겨서 4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공격 본능을 과시했다.

2회 첫타석에서 좌완 장원삼의 초구를 공략해 중전안타를 때려낸 신종길은 6회에는 안지만을 상대로 우익수 방면으로 빠지는 안타를 기록하며 멀티히트에 성공했다.

안타 행진은 8·9회에도 계속됐다. 8회 2사 1루에서 좌완 박정태에게 중전 안타를 뽑아낸 신종길은 7-8로 맞선 9회 5번째 타석에서는 2타점 역전타를 만들었다.

2사 1·3루에서 정현욱과의 승부에 나선 신종길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두 명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이어진 이용규의 중전안타때 빠른 발을 앞세워 홈까지 파고들면서 득점도 기록했다.

이정훈·한승혁 신예 투수들이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경기는 10-11 재역전패로 끝났지만 KIA는 타선의 키 신종길의 활약에 웃었다.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한 신종길은 프로야구 최연소 사이클링 히트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변화구에 약점을 보이며 '만년 유망주'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올 시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무리캠프에서부터 선동열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신종길은 시범경기 9경기에서 24타수 9안타로 0.500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어깨가 좋지 않아 속도를 조절했던 신종길은 23일 롯데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출장하자마자 솔로포를 쏘아올리는 등 5타점을 기록, 안치홍(7타점)에 이어 팀 타점 공동 2위(나지완)에 올라 있다.

무엇보다 타구질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변화구 공략을 위해 스윙 궤적을 바꾼 신종길은 상황에 따른 타격으로 다양한 코스에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다. 타석에서의 인내심이 늘면서 삼진 비율은 줄었다.

신종길은 "수정한 타격폼이 아직 완벽하게 몸에 익지는 않았지만 변화중이다.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타선의 변수였던 신종길의 활약은 선 감독에게는 천군만마다. 김선빈을 9번에 배치해왔던 선 감독은 29일 신종길과 자리를 맞바꿔 각각 2번과 9번에 투입해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신종길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 감독의 타순 구상에 탄력이 붙게 된다. '공격형 2번'을 준비하고 있는 선 감독에게는 2번과 9번이 타순의 연결고리. 신종길이 김선빈과 함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면 조커 안치홍을 중심에 배치해 타선의 파괴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11년차의 '만년 유망주' 신종길이 KIA 타선의 검객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광주 홈개막전 입장권 예매 4월 2일 11시 시작

10일부터 삼성과 3연전

KIA 타이거즈의 광주 홈개막전 입장권 예매가 2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삼성과의 광주 홈개막전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며 세 경기 모두 오후 6시30분에 시작된다.

입장권 예매는 인터넷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와 ARS 1588-7890, 훼미리 마트 ATM, GS25 ATM, 한네트 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주차난에 대비해 KIA는 자전거 이용객에게 1·3루 내야 지정석과 외야석에 한해 1000원의 추가 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KIA 마케팅팀 장판기 팀장은 "신축 야구장 공사로 인해 주차공간이 협소해 팬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면 입장과 퇴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T클럽' 회원 모집

KIA타이거즈가 내달 4일부터 2012시즌 홈페이지 'T클럽' 회원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000명이며 가입비는 2만원이다. KIA 홈페이지(http : //www.tigers.co.kr) 팝업창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타이거즈 텀블러가 가입선물로 주어진다.

한편 KIA는 올해부터 'T클럽' 회원을 1년 회원제로 운영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단신 킬러들의 골싸움

K리그 '돌풍' 광주 주말 강원과 한판 승부

광주 주앙파울로·강원 시마다 170㎝ 대결

광주 주앙파울로

강원 시마다

광주의 명품 질주가 계속될까?

광주 FC가 내달 1일 오후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 FC를 상대로 2012 K리그 5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화끈한 공격력을 앞세워 K리그의 순위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광주는 강원을 상대로 상위권 굳히기에 도전한다. 5경기 무패행진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앞선 부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주앙파울로의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두며 승점 10점을 채웠다. 서울에 득실차에서 밀리며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처음으로 2위 자리에 오르며 고공행진중이다. 강원은 1승1무1패(승점 4)로 11위에 처져 있다.

선두권 굳히기와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양팀의 대결은 '잇몸싸움'이 될 전망이다.

스피드로 광주의 공격에 힘을 더해주고 있는 핵심킬러 김동섭과 중원싸움을 이끌고 있는 캡틴 김은선이 경고누적으로 5라운드 경기를 쉰다. 이승기는 3라운드 제주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다.

강원은 부상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핵심 미드필더인 김정주가 발목피로골절로 쓰러졌고, 중앙수비를 책임지던 박우현은 훈련 도중 아킬레스건 통증을 호소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다. 김은중도 발목부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공백이 불가피하다.

'잇몸싸움'의 최전방에 양팀의 단신 킬러 주앙파울로와 시마다가 선다.

주앙파울로는 4경기에서 3골1도움을 기록하면서 광주의 순위 싸움을 이끌고 있다. 주앙파울로는 전지훈련 기간 10경기에서 10골을 터트리며 공격에 물이 올랐다. 중국 전지훈련부터 시작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후반 조커로 투입돼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면서 광주의 감동 드라마를 장식하고 있다.

강원은 시마다 유스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주앙파울로와 같은 170㎝ 단신인 시마다는 빠른발과 프리킥이 돋보이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올 시즌 1골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4경기에서 나온 7개의 슈팅 가운데 5개가 유효수팅으로 기록될 만큼 강원의 공격 중심에 서있다.

단신 킬러들의 골싸움이 광주와 강원의 5라운드 대결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